

# 전국 아파트값, 1년 2개월만에 '하락전환'

###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26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 0.01% 하락

오름세를 이어가던 전국 아파트값이 약 1년2개월만인 이달 넷째주 하락 전환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전환은 지난 2017년 2월 첫째주 이후 58주만에 처음이다.

전국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가 10년7개월만에 역전돼,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매매가격이 지난 2017년 11월 셋째주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포함 8·2대책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주 매매가는 수도권에서 0.05% 상승, 지방에선 0.07% 하락했다. 서울 상승률(0.09%)은 한달 전인 2

월 마지막주 상승률(0.21%)의 반토막도 되지 않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2% 상승했다.

서울 강북지역은 0.08% 올랐다. 서대문구에서 뉴타운 등 거주여건이 개선되거나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마포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는 개발호재나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노원구는 2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지역은 0.10% 올랐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인근의 매물부족으로 상승했다. 구로구는 인근 양천구와 영등포구 대비 가격이 낮아 오름세를 이어갔다. 동작구는 한강변 일부 단지 가격조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4구는 금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반토막났다.

지방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대전은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개발호재와 거주선호도가 높은 대

단지 수요로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저평 가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제주는 신규주택 및 미분양 증가로 하락 전환했다. 충청과 경상권 등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했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전남(0.08%), 대전(0.05%), 대구(0.05%)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20%), 제주(-0.17%), 경북(-0.17%) 등은 하락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0.09% 떨어졌다.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0.10%, 지방은 0.08%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0.10% 떨어졌다. 서울은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수요가 분산돼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1%, 0.05% 떨어졌다.

서울 강북지역은 보합했다.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로 종로와 성북

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아파트 입주로 전세매물이 증가한 성동구와 인근 택지지구로 수요가 분산된 노원구에서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지역은 0.18%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양천구는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송파와 강동구, 강남구는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입주물량으로 수요가 분산돼 하락세가 확대됐다.

지방(-0.08%)은 전주(-0.0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전남과 대전은 거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울산과 경상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매물이 누적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충북과 부산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했다.

주요 전세가격은 전남(0.07%), 대전(0.04%), 광주(0.02%)는 올랐다. 반면 경남(-0.28%), 울산(-0.19%), 경북(-0.18%), 경기(-0.11%) 등은 떨어졌다. /최수호 기자

##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구·특화센터에 76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등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같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규모 등으로 인해 자금·관료·인력부족 등 경영여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5곳 이내로 새로 선정해 구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공

동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적지구 안에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4곳 설치하고 이를 위해 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에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화지원센터는 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귀금속, 식료품 등 13개 업종과 관련해 10개 시·도에 32곳이 설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수호 기자

## '익산부송 꿈에그린'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 추천

### 중기청,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 대상... 내달 6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부송 꿈에그린'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프블링 및 태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한화건설로서, 주택 위치는 익산시 부송동 1102, 1102-1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59㎡형 7세대, 59㎡B 6세대, 59㎡C 6세대, 74㎡ 14세대, 84㎡A 14세대, 84㎡B 13세대로 총60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무주덕유리조트 환경 정화작업**

조트 진·출입로 중심에 위치 등방천 주변

부영그룹(회장 이종근) 무주덕유리조트가 29일 리조트 진·출입로 중심에 위치한 등방천(상, 하행 총 1.9km) 주변의 환경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환경 정화작업에는 부영 무주덕유리조트 직원 30여명과 덕유산 국립공원 20여명,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무주군관광협의회원 2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부영 무주덕유리조트는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동계시즌에만 100만여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만큼 버려진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등방천의 환경 보호와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리조트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미세먼지 '극성' 마스크 판매 매출 '급증'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마스크 판매 업체들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한국소리엠펜 등 대표적인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마스크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점차 일상 생활화 되는 추세"라면서 "마스크를 곧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유한킴벌리 측은 시판 중인 크리넥스 황사마스크가 올해 전년 1분기(1~3월) 대비 100% 이상 매출이 신장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가격비교 사이트 '에너지 가격비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지난 25일 마스크 매출은 3월 평균 매출(1일~24일)과 비교해 67%(7.7배) 증가했고, 이중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에너지 측은 그 외에도 파인텍의 웰킵스 황사마스크 등도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황사마스크는 국내에 300개 이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 황사마스크(생활용품) 시장의 경우 700억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통계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가계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2012년부터 해마다 조

사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부터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까지 포함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제청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다시금 결과를 보완한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공개된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